

새로운 삶의 시작을...

김사향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자원봉사자



더 없이 아름다
운 11월. 위령
성월이다.

호스피스 봉사를 하면서
환우분들을 통해 내 삶과
신앙이 깊어감을 느낀다.
소복이 쌓이는 낙엽을 바
라보자니 소중한 인연의 한 분이 떠오른다.

“많이 힘드시지요!”하고 병실에 들어갔을 때 “안
녕하세요!”하고 반겨 주시던 60대 중반의 남자분이
계셨다. 가족들의 지극 정성스러운 관심 속에 입·
퇴원을 반복하며 만남은 이어져 갔고 이런저런 대
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느님에 대하여 나눔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느님을 믿으면 무엇이 좋으
냐?’고 물으셨고 이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성서구
절인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
는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누었다. 그분은 죽음 앞에서
나는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하고 조
용히 말씀하셨다.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두려움과
분노, 화... 그 이상의 무엇인가 표현하기 힘든 모습
을 가깝게 엿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나의 죽음을
바라보게 되었고 ‘나 또한 죽음 앞에서 과연 자유로
울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갖게 되었다. 깊은 성찰
속에 나 역시 자유롭지 못함을 바라보며 그분의 울
분과 화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고 그 두려움이
란 ‘내가 감히 느끼기 힘들만큼 크겠구나!’ 하는 마
음이 들었다.

그렇게 그분과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동안 당신이 살아온 삶을 나누게 되었다.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오셨고 특히 부인에 대한 배려
심과 모든 상황에서 부인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이 강했으며, 부인 또한 남편에 대한 사랑과 굳은
신뢰심이 참으로 보기에 아름다웠고 좋았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몸의 상태는 나빠져 갔고
힘이 들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음
또한 약해져 삶에 대한 강한 애착과 동시에 몹시 불
안해하시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하느님을 믿으면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다시금 말씀하시
면서 마음을 정하신 듯 “나 같은 사람도 하느님을
믿으면 될까?”하셨다. 그 말씀 속에 마음으로부터
삶의 정리와 하느님께 향한 굳은 믿음의 의지가 엿
보였다. 또한 딸과 부인도 아버지의 마음에 함께 동
참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녀들도 아버지가 하
늘로 돌아가심에 대해 신앙적으로 편안하게 받아들
이게 되었으며 얼마 후 대세를 받으시고 보례를 통
해 세례를 받으시게 되었다.

세례 받으시던 그날은 건강 상태가 많이 나쁘서
서 일어나기도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내가 다시 태어나는 날이라 그런지 아침 일찍부터
설레이고 기분이 좋아요.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 다
시 태어나니 나 이제 한 살이지! 그러니까 한 살 아
이처럼 살면 되는 것이지!”라며 해맑게 웃으시던
모습이 참으로 어린이와 같아 보였다. 그 후 임종의
순간까지 굳은 믿음 안에 편안하게 당신 삶을 정리
하고 고요히 하늘로 돌아가셨다. 그분은 하느님 안
에서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자유로움과 평화로

승화 시키셨다. 그토록 사랑하던 남편과 아버지가 믿고 행복해 했던 하느님을 남은 유가족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 분과의 만남이 나에게 또 다른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이었고 이후 환우분들과 함께하며 긴 여운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호스피스 봉사를 통해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닫게 된다. 때론 너무나 작고 부족한 자신을 보며 부끄럽기만 한다. 그러나 봉헌이란 존재 자체를 바침에 그 의미가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해 보며 이런 작

고 큰 만남들이 나를 아니 우리를 매순간 새로운 삶의 시작점으로 안내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 죽음의 고통 앞에 힘겨워할 환우분들과 또 이를 지켜보고 같이 아파할 가족과 호스피스에 종사하는 모든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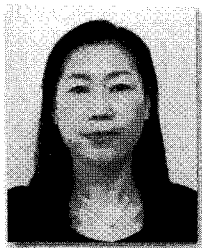
매순간 시작되는 새로운 삶에 감사하며 먼저 가신 모든 환우분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희망해 본다.



제2차 림프부종 간호교육과정을 마치고...

정수자

성 이시돌 복지의원 간호사



지난 11월 1일부터 3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분당 보바스 기념병원에서 제2차 림프부종 간호교육이 있었습니다. 각자 한 주간의 근무를 마치면 바로 교육장

소로 가서 짧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곤 잠시도 딴생각할 겨를 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된 빡빡한 일정 속에서의 이번 강의를 통해서 림프부종환자 간호의 이론과 실기를 함께 배우며 마지막엔 떨리는 시험까지 치느라 긴장의 연속이었기에, 교육일정이 끝나고 수료증을 받는 순간 느꼈던 뿌듯함은 정말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였지요. 그러나 그렇게 다소 들떴던 마음도 잠시뿐이었고, 배운 것을 어떻게 실제로 환자들에게 적용하여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안고 각자의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강의와 엄격한 실기 심사를 통해 정확한 교육이 되도록 도움을 주신 염창환 교수님을 비롯하여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1기 선배님들, 그리고 강사진의 열과 성을 다한 교육에 감사드리며 교육장소인 보바스 기념병원의 깔끔한 교육환경과 교육기간 내내 저희들 교육생들을 위해 사소한 것들까지도 자상하게 챙겨주시던 간호부의 배려도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더욱 효율적인 집중교육을 위해, 그리고 교육생들이 서로를 알고 유익한 정보

도 교환할 수 있도록 교육일정에 지금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었고, 덧붙여 바라다면 각 지방에서 교육을 위해 상경할 경우, 지역에 따라 선 이동에 따르는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 가능하면 지방에서도 이러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성이시돌 복지의원은 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를 모두 가난한 이로 여겨 빈부의 차나 여러 가지 다른 조건에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말기 암환자들을 위해 도내 최초로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립된 호스피스 전문병원입니다. 후원에 의해 유지되는 병원이라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제위기 속에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지만 환자에게 제공되는 돌봄의 질을 높이고자 다양한 교육을 통한 간호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제주도의 호스피스 환경은 아직 열악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한 교육의 기회가 적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렵게 바다 건너까지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올해 2차로 림프부종간호교육이 실시된다는 소식을 접하시고 꼭 받아줘야 할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과장수녀님의 적극적인 추천과 평소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시는 원장수녀님의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신선한 자극이었고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기회에 감사하며 배운 것을 나누고, 환자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며 짧은 글을 맺을까 합니다.